

제60회 합격자 정지오



한양대 기계공학부 10학번
SK하이닉스 2년6개월 재직
퇴사 후 시험준비

키워드: 4시 합격, 퇴사 후 합격, 30대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약4년정도 공부를 하였고 4시로 60기번리사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2년6개월간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30살이라는 나이에 번리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저도 퇴사할 당시에는 누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가는 대기업을 왜 퇴사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낮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일단 수험기간 동안은 나이와 예전 회사를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고민을 하고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4시에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4시에 접어들면서 바뀌게된 공부방법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II. 1차 시험

1. 서설

저 같은경우의 1차는 8월경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준비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의 1차만을 준비했었고 2차시험의 민사소송법같은 과목은 단 한과목도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차과목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암기위주 보다는 객관식 문제집을 회독하여 풀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2. 동차시기의 1차 (평균 87점)

(1) 민법

먼저 8월에 하루공부시간의 절반정도를 투자하여 민법 기본강의를 6강의씩 수강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2배속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민법기본강의가 강의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정체되어있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지못할것이라고 생각하여 빠르게 수강하는 것을 목표로했습니다.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한 뒤 객관식 문제를 시험전까지 풀고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하루 계획의 민법공부시간을 절반으로 나눠 기본서 회독 + 객관식문제집 회독을 시험전까지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1차시험은 기본서회독도 중요하지만 객관식의 OX판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 보기를 계속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다.

(2) 산재법

산재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기본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만 1차 산재법은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였기 때문에 특허법을 8월부터 민법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특허법 기본강의를 다 듣고난 후 상표법기본강의를 듣고 디자인보호법은 12월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본강의를 듣고난 후 각각 객관식문제집을 회독하였고 민법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공부시간을 반으로 나눠 기본서 회독 + 객관식 문제집 회독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상표법을 어느정도 공부했다면 12월이나 1월에 시작해도 충분한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민법, 특허법, 상표법을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자연과학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본강의를 먼저 듣고 객관식 각 과목별 한권씩 사서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간혹 자연과학중 어느 한과목을 전략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쓰는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정적인 1차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버리는 과목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암기과목인 생물, 지구과학은 시험때 10분안에 20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때 생물, 지구과학을 먼저 푸는 전략을 썼습니다. 생물, 지구과학을 잘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삼시시기의 1차 (평균 85점)

삼시 시기의 1차는 보통 2차시험발표가 난 직후 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했습니다. 다만 예전의 1차공부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동차때처럼 기본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의 경우 강의수가 적은 민법 중급강의를 듣고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후 저는 기본서회독 + 객관식문제집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기본서는 새로 사지않았고 객관식문제집만 새로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산재법은 특히나 2차때 계속공부하던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따로사지 않았고 객관식 문제집만 계속 회독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삼시라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은 예전 동차때 쓰던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을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삼시를 시작하는 경우 당연히 불안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의 1차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믿고 계속 한 결과 수월하게 높은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III. 2차 시험

1. 서술

2차 시험은 1차시험과 다르게 주관식에 논술을 해야했기에 1차시험과 공부방법이나 시험작성방법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오랜기간 2차시험에 감을 잡지 못하여 4시를 했다고 생각하며 3시까지의 공부방법과 4시때 바꾼 공부방법 및 답안지 작성법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2. 3시때까지 실패 원인 고찰

(1) 답안지

2차시험을 대하는데 단순하게 논점을 맞추는 것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답안도 논점파악을 중점적으로 하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어떻게 써내려갈까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3시때 논점누락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큰점수 차이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 기출문제 파악

2차시험은 어느정도 경향이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출문제를 어느정도 분석한 사람이라면 시험이 최신판례, Top10판례, 이슈판례 위주로 나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크게 판례형, 사례형, 조치형식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공부하였으며 기출분석을 잘 하지 않은 것이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3) 내답안지와 다른사람들 답안지 비교하기

1차시험은 혼자해도 충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2차시험은 혼자만해서 합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봤을 때 잘 쓴 답안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원들 또는 강사님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겸손한 자세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3시때까지 혼자만의 답안지에 갇혀있어 피드백을 받지 않았고 받아도 그냥 논점만 맞추면 되지 라는 식으로 거만했던 것이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3. 4시때의 전반적 수험생활

11월: 민소위주 기본서 회독 + 이창한선생님 심화강의

12월: 이창한선생님 민소 심화강의 + 박형준 변리사님 특허법 심화강의

1월: 기본서 회독 + 암기/쓰기

2월: 상표/특허 실전GS

3월: 민소/특허 실전GS

4월: 민소/상표 실전GS

5월: 민소/상표 실전GS

6월: 민소/특상콜라보 실전GS

4. 과목별 공부방법

(1) 점수 - 60회 평균: 55.33(컷 54.33)

	1문	2문	3문	4문	계
특허법	47	29	48	33	52.33
상표법	47	30	56	28	53.66
민사소송법	52	37	53	38	60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특허법, 상표법과는 달리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 기출문제를 보면 난해하게 묻는 방식이 거의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제시하는 답안지 틀을 그대로 작성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모든 문제가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판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 이창한선생님의 통합민사소송법을 기본서로 삼아 공부하여 사례집+실전GS를 매달 듣는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통합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자체가 아는판례가 나오면 답을 맞출수 있고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판례나 기본이론이 요약된 기본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GS는 매달듣기위해 광준형,양진하 변리사님의 강의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제일많은 공부시간을 할당하여 기본서회독과 사례집+실전GS를 회독하였습니다.

(3) 특허법

특허법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크게 판례를 그대로 묻는 문제, 판례를 기반으로 사례를 묻는 문제, 조치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각 유형별로 대비를 하기 위하여 공부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서+판례집+사례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준특허법을 보았기 때문에 판례집과 사례집도 준특허를 기반으로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였으며 판례형 문제와 판례기반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하여 판례집을 기본서와 동일한 비율의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은 기출문제만 보았고 기출에 나오는 조치형 문제들을 풀 수 있다면 어떤 조치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수있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실전GS는 2월을 제외하고는 대형으로만 수강하였습니다.

(4) 상표법

상표법은 제가 수험기간 내내 어려워했던 과목입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은 적은 반면 답안지작성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법도 답안지의 사안포섭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표법은 테마상표법+판례집으로 공부하였고 사례집은 갖고있었지만 기출만 보았습니다. 상표법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강조하는것처럼 판례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서와 판례집을 거의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고 반반씩 회독하였습니다. 판례집을 보는 이유는 답안작성시 판례가 하는 사안포섭의 방식을 따라하기 위하여 보았습니다. 특히나 사안과 법리를 잘 어울리지게 만들기 위하여 판례 문구를 하나 하나 뜯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답안지작성방법에서 서술하겠습니다. GS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2월을 제외하고는 대형으로만 수강하였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저는 선택과목공부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P/F제도이기 때문에 50점만 넘길수 있는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정다운변리사님의 텍틱디자인보호법 책과 김인배변리사님의 판례집을 보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상표와 특허를 적절히 섞어놓은듯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되서 따로 답안작성연습이나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4시를 하던 때는 GS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GS를 듣지않는 것은 조금 위험하므로 추천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5. 답안지 작성방법

답안작성은 제가 4시때 제일 많이 신경쓰고 고치려고 노력했던것입니다. 흔히 말

하는 와꾸라고 하는데 와꾸라는 것이 단순히 글씨체를 잘쓰냐 안쓰냐의 말이 아니라 답안작성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작성 했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친부분은 목차의 흐름입니다. 목차의 흐름만 보더라도 어떤 논리로 답을 써내려갔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적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갑의 주장에 대한 당부" 라고 했을 때 그 당부를 논할 수 있는 판례를 단순하게 목차를 판례로 적는 것이 아닌 "~한 경우~하는지(판례) - 적극/소극" 이라고 판례 제목을 붙였으며 판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친부분은 사안포섭입니다. 사안포섭시 저는 사안에서 주어진 상황+판례문구와논리흐름+내생각이 잘 어울리지게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유사판단시 단순히 "외관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다" 라고하는 것이아닌 "외관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B자 이므로 일반인의 출처혼동을 야기할 우려가있기 때문에 유사하다" 라는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체를 신경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슬프지만 글씨가 좋지않으면 인상적인 부분에서 안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있는시험이기 때문에 글씨같은 사소한것에 당락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글씨가 안좋은 분들은 최대한 글씨를 크게 쓰고 자신에게 맞는 펜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제트스트림 펜통+에너겔 0.5심을 꺼서 사용하였습니다.

6. 스터디

2차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스터디를 많이 하는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혼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는데 스터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늦은나이에 시작하셨거나 장수의 길에 접어들게 된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립니다. 스터디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답안지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시때까지 제 답안지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냥 지금의 길로만 가면 결국 합격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는 타인이 보았을 때 좋은 답안지가 진짜 좋은 답안지이며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되기에 스터디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일 쓰기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시를 하는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쓰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시험때까지 쓰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시험때 쓰기 때문에 당황하는일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GS를 풀어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GS는 주말에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시간적인계로 많은 GS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터디를 통해 평일에 GS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스터디 방법

저는 매일 1시간 쓰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11월~2월까지의 민사소송법 핸드북 중 매일 1시간씩 2문제를 골라 쓰기를 하였습니다. 3월~시험전까지는 현장GS에서 수강하지 않을 GS를 선택한 후 매일 특허 상표를 번갈아가며 1시간씩 2문제를 썼습니다. 다 쓰고나면 스터디원과 바뀌가며 읽어보고 10분간 피드백을 하는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드백은 단순히 와꾸에 대한 피드백만 하였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7. 단권화

2차시험은 짧은기간안에 대량의 분량을 공부해야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권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단권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판례 분량늘리기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당연히 그해 제일 중요한 판례 또는 최신판례가 출제 1순위입니다. 이는 실전G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수험생들이 아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례들은 따로 프린트 하여 책구석 또는 빈곳에 원문 그대로 붙여놓았고 예상되는 목차들을 미리 잡아 작성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빈출 or 자주틀리는 문제 목차를 잡아놓기입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틀리는 문제는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또틀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빈출되는 논점 or 자주틀리는 논점에 미리 목차들을 적어놓고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8. 판례공부

위에서 서술했듯이 2차시험의 판례는 그해 가장 중요한 판례 또는 최신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판례는 항상 원문을 통해 사실관계나 원심까지 확인하여 단권화 했습니다. 저는 준특허법 판례집의 별표시를 통해 중요도를 확인하였고 상표의 경우 최신판례 5개년치는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단권화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V. 수험생활 일반

1. 멘탈 관리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만큼 저 역시 기득으로 합격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3시에 떨어졌을 때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서 제 스스로에 만족할 것 같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잘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도전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분명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이며 결국에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금방 불합격은 잊혀지고 앞으로의 시험만 생각하게 되어 멘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 체력 관리

저는 4시를 시작하면서부터 헬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3시때까지는 12시간~14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오래 앉아있을수록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힘든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녁식사 전 4시부터 1시간씩 근처 헬스장가서 운동을 하고 꼭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며 저녁식사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을 쓰지않기위해 항상 5시30분에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운동 후 샤워라는 장치를 통해 공부 시간을 반으로 나눠 사용하여 저녁시간을 다시 프레시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짬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시험때 컨디션 조절

저는 기득과 3시때까지 시험전날에 잘봐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밤을 새서 시험장에 갔고 컨디션이 안좋은상태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변리사시험은 1년간의 노력을 단 2틀만에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날의 컨디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4시때는 인데놀이라는 긴장완화 약을 먹기로 결정하여 인데놀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약을 먹는것도 고려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V. 퇴사 후 늦은 나이에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에게 올리는 글

저 또한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기간 공부 하였지만 이 공부를 시작한것에 한치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분명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도, 또 주변환경에 부딪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 환경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결국에 지나고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 수험생들과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시때까지 혼자만 공부하다가 3시탈락후 모든 주변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된다는 마음으로 힘내면 결국 합격할 수 있습니다.

VI.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합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운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운이나빠도 합격할수 있도록 시험을 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당히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수험생시절을 겪었기에 변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분들을 존경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적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읽고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엄마와 형 그리고 여자친구, 항상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자 TIP.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하여 담백하게 답하기!

간혹가다 GS에서 문제에서 묻지 않았는데 선결로 혹은 전제 논점으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전체적인 답안지 와꾸에 마이너스가 되며 오히려 주 논점 하나만을 적고 답을 내리는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시험은 주논점만 잘 파악해도 붙는 시험이므로 문제에서 질문한 바에 그냥 담백하게 해결해 주십시오.